

사선(死線)을 넘고 넘어..... 역사가 되다



권태강 회장

권태강회장(검교공과회회장, 33세) 왼쪽 무릎 언저리에 적 포탄의 파편이 아직도 박혀 있다. 비가 오려고 날씨가 무뎠다면 아픈 기억과 함께 '징-징-' 욕신거리며 권회장을 아프게 한다. 특히 휴전을 선언했던 7월 27일 무렵이면 더 아리고 수신다. 올해로 88인데 6.25때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가족은 물론 그 누구한테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얼마 전 동아일보(2018.7.10. 제30139호 31면)에서 '고지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바람에 국군 3사단과 중공군 67군 간의 529 고지전에 직접 참전했던 권회장으로서의 그때의 기억이 더 생생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정신이 흐릿하게 되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말할 기회가 없더라도 한다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라기 보다는 개인의 살아있는 역사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월의 저편에 머물고 있는 처절한 기억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

권회장은 보성 고등학교 재학 중 1주일에 한 두 시간씩 군사 교육을 받았다. 1949년 군사교육을 받을 당시 의정부 북방 동부전 모 부대에서 1박을 하면서 전쟁 발발 시는 이곳으로 배치될 것이니 이 부대로 직접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귀가하곤 했다. 공교롭게도 보성고등학교 2학년이 재학 중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38선 부근에 적군의 소요가 발생했으니 훈련받은 부대에 참전하라고 독려했다. 그래서 권회장은 마장동 집에서 군사훈련 받은 대로 그 부대로 가던 중 왕십리 부근에서 적 포탄이 무릎에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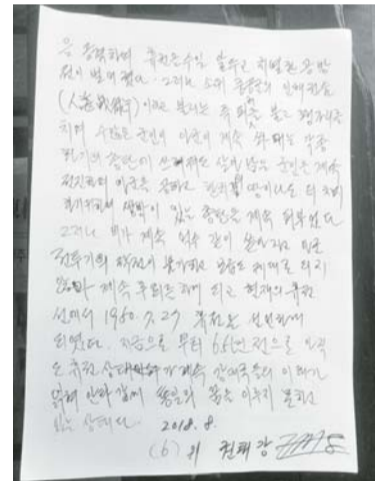
히는 부상을 당하였다. 급히 의사들도 피난가고 없는 인근 병원에서 간단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귀가하여 집 부근 방공호에서 집어준 심박약으로 치료를 하였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얼마 후 정식으로 입대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기차를 타고 가서 아침에 내리니 부산이었다. 부산 서대신국민학교에 집결했다가 부산 육군통신학교에서 무선통신(무선통신 2기) 교육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선교육은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차출해서 교육시키었다고 했다. 무선통신학교에서 3개월 동안 도스돈도로스도로스돈..... 하는 모로스 부호로 타전하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 비품용으로 쓸 만한 통신기계가 없었다. 교육생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불뚝 튀어나온 감지 부분에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살짝 걸치든가 아니면 무릎에 대고 비문을 타전하는 연습을 했다. 교육을 받고 난 후 처음 배치 받은 부대는 3군단사령부였다. 그런데 그 유명한 중공군의 현리(강원도) 포위 작전으로 인해 3군단사령부는 해체되고 말았다. 당시 3군단장이었던 유재홍 장군은 헬기로 겨우 탈출했다. 이 여파로 통신병들은 3사단, 연대, 대대로까지 하향 배치되었다. 권태강 중사는 3사단 18연대 2대대 통신대 무선반장 보직을 받았다. 무선반장 관중사는 대대장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되기 전까지 국군 3사단과 중공군 67군이 피아간에 가장 치열한 마지막 공방전이 벌어질 당시 2대대장으로 부임한 정승화 중령은 관중사가 근무하던 최일선 철의 삼각지에 있던 529 고지에 오르기 전까지 약 1.3km 떨어진 후방 지역 참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정승화 대대장은 무선반에

무전기를 메고 급히 오라고 지시했다. 그 긴급 명령에 따라 누군가는 대대장이 대기 중이던 통신보급소로 가야 했다. 그 거리는 약 1.5km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적의 각종 포탄이 빗발치는 죽음의 계곡이었다.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만 대대장이 대기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선(死線)을 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통신병이 12명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다. 무선반장인 관중사는 직접 무전기를 메고 부하 1명을 대동하고 일선 고지에서 밤 8시경 출발하였다. 두 사람 중 1명이 부상 당하거나 전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호국영웅상



▲자필영고



서 2명이 각각 출발하였다. 전쟁터는 화전 북방 산골짜기라서 어둠이 몹시 빨리 찾아왔다. 밤 8시경이라도 앞뒤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 어디에서도 불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한 밤중이었다. 오직 적 포탄이 작렬하는 화광(火光)만이 죽음의 계곡을 잠깐 환하게 간헐적으로 천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통신대장 김모 소위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무선반장이 자진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출발하려하자 내려가다가 전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던지 통신대에 오직 하나 밖에 없는 당시 장교들에게만 보급되었던 방탄조끼를 관중사에게 입혀주었다. 권회장은 방탄조끼를 벗어주며 눈물을 흘치면서 마음 아파하던 김소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관중사와 부하 1명은 고지에서 통신줄을 타고 내려와 젓 먹던 힘까지 온 힘을 다하여 뛰기 시작하여 죽음의 계곡을 돌파했다. 둘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천우신조로 대대장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보고할 수 있었다. 대대장이 쉬고 있는 곳에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통신보급소에서 약 1시간 가량 눈을 붙였을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적 포탄 한발이 대대장 정승화 중령이 쉬고 있던 '참호' 출입구에 떨어졌다. 이 포격으로 참호에 누워있던 대대장은 다행히 발꿈치만 부상을 당하고 앉아 있던 대대장 당번병은 적 포탄에 필살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 휴전 65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이처럼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관중사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기적이다. 그런데 묘하다. 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달 전쯤에 전쟁터에서 잠시 휴식 중에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얼굴이 눈앞으로 휙 지나가더라. 그 순간 할아버지가 손주를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구나 하고 직감했다.

대대장은 본인이 휴대하고 있던 비상용 붕대로 지혈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속칭 백골연대라고 부르던 18연대 본부에 연락하여 엠블런스로 후송되었다. 정승화 대대장은 후일 육군대장으로 승진하여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수년 전 세상을

을 떠났다.

수많은 전우가 적군의 포탄에 유명을 달리하던 그날 밤, 당시 수일간 계속하여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때마침 중공군이 아군 3사단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자 적군과 아군은 우의를 입고 피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뒤섞여 육박전을 벌였다. 중공군은 주로 야간에 기습을 많이 했다. 소위 중공군의 인해전술(人海戰術)은 무지막지한 것이었다. 수많은 중공군이 피리를 불고 팽과리를 치며 아군이 계속 쫓아오는 각종 화기의 총탄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살아남은 중공군은 계속 전진하며 밀고 또 밀치고 들어오며 아군을 공격하며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총탄을 계속 퍼부었다.

그러나 비가 계속 억수같이 쏟아져 아군 전투기의 작전이 불가능하였고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후퇴를 할 즈음에 현재의 휴전선에서 1953.7.27. 휴전이 선언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의 일이다. 그때 선언된 휴전은 아직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남북분단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루 빨리 통일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권회장은 내 젊은 날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늘 죽음 앞에 서있는 세월이었다. 아직도 포탄 파편이 내 다리에 박혀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다. 나만 억울한 것이다. 한 평생 살고 보니 내 다리에 박힌 파편이 내 훈장이었다. 글로써 역사를 다 읽을 수 없다. 파편이 곧 역사이다. 또 하나의 훈장은 1993년 국가로부터 받은 호국영웅장과 국가유공자증이다. 목숨을 걸고 생과 사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든 대가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통신대에서 유일하게 훈장 훈장을 받았다.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조국을 위해 피땀 흘려 싸웠던 무수한 개인들의 파편의 역사도 대한민국과 함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기사는 권태강 회장(군복무기간: 1950.11.30.-1955.3.25.)의 6.25 전쟁 참전 관련 인터뷰와 자필영고, 동아일보, 병적증명서, 훈장, 국가유공자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취재 편집국장 권행완

연리실기술과 인물탐구(2) 양촌 권근

연리실기술은 여러 야사(野史)를 널리 채택하여 모아 완성한 책이다.

그런데 동서로 당파가 나뉘진 뒤로 이편저편의 기록에 대해 서로 어떤 부분은 험뜯고 어떤 부분은 칭찬하는 사례들이 빈번했다. 또 편찬하는 이들 또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서 이공익은 모두 사실 그대로 수록하고 옳고 그른 것은 뒤에 오는 독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생각이었다.

각기 그 시대의 상신(相臣)과 문형(文衡)은 현우(賢愚)를 불문하고 모두 차례대로 기록했고 유현(儒賢)과 명신(名臣)도 보고 들은 대로 기재해 넣어 감히 사건으로 어떤 이는 올리고 어떤 이는 깎는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자의 말대로라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 누군가가 기록한 기록 그대로 기재하고 편집했다는 얘기가.

이공익의 의도대로라면 아직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이공익은 젊었을 때 유향(劉向, 중국 전한 때의 학자이자 정치가)이 옛글을 교정할 때 태일선인(太一仙人)이 러(麴)라는 일년초 풀의 줄기로 만든 지팡이(靑藜杖)를 줬은 노인이 나타나 지팡이를 대워 방을 밝혀 주었다는 고사를 사모해 선군(先君)으로부터 손으로 직접 쓴 연리실(燃藜室) 세 글자를 받아 서실의 벽에 붙여 두고 그것을 각관하러다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양촌 권근은 당대의 대석학이자 조선정치의 방향을 설정한 대사가였다.

연리실기술에서는 양촌 권근을 태조조의 첫 번째 문형으로 꼽는다.

양촌은 유배를 어디로 가든 책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다. 익주에 귀양 가서는 <입학도설>을 지었고, 충주 집에 돌아와서는 <예경>을 교정하고 <오경>을 해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달고서 겸손하게 천견록(淺見錄)이라 이름하였다.

연리실기술에서는 양촌이 조선에 출사하는 장면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태조 2년 봄에 태조가 계룡산에 갈 때 양촌을 행재소로 불러 정릉의 비문을 지으라 명하고 예문관 제학으로 제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전석은 양촌의 출사는 의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상촌취언(象村集)>은 <계룡산송(鷲山頌)> 시 한 편 지은 바람에 졸지에 절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한다.

연리실기술은 양촌이 출사하게 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개국한 뒤에도 양촌이 출사하지 않자 태조가 데려오려고 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태조가 아버지 권희에게 이르기를 "권근이 나를 잊었는가. 전조(前朝)를 위해 수절하는 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대의 나이가 이미 많은데 권근이 와서 보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충성하는 것만 생각하고 효도하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가" 하니 권희가 사람을 보내 권근이 오기를 재촉했다고 한다.

그래서 양촌 권근이 충주에서 출발하자 아버지가 서울에서 친히 나와서 맞이해 종일토록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무어라고 말한 뒤에 대궐로 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태조가 팔도의 경치를 그린 병풍을 가리키며 "나를 위해 이 누와 저 정자에 기를 지어" 달라고 하자 이에 지어 올리면서 출사했다는 얘기가.

또 하나는 태조 2년 봄에 태조가 계룡산에 갈 때 양촌을 행재소로 불러 정릉의 비문을 지으라 명하고 예문관 제학으로 제수했다는 내용이다.

출사를 권유하는 아버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듯하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현인비 추모 및 참배단 모집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1408년 명나라에 공녀로 끌려가 영락제 제1비 역할을 수행하다 젊은 나이에 서거하신 권현인비(북야공파 16세손 가선대부 휘 집종의 딸)의 넋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족친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교문화권 중심지역인 공자의 고향 등 유적지를 아래와 같이 탐방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8년 10월 18일 ~ 10월 21일(3박 4일)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1차 참배단)
- ◆금액 : 800,000원(중국 산둥공항, 비자, 추모행사 등)
- ◆코스 : 인천공항 → 산둥성 제남 → 조장시(1박) → 조장시 정부, 권현비 능 참배, 곡부 공묘(2박) → 제남(3박) → 제남공항 → 인천공항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02-2695-2483 ~ 4 사무총장 권건중(010-5481-2297)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